

文에겐 있었고 尹에겐 없는 것

태평로



배성규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대통령에게 불려졌다. 청와대 예산 문제를 보고하는 독대 자리였다. 문 전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와 관련해 뜻밖 지침을 내렸다. “집사람이 조만간 당신을 부를 겁니다. 청와대 살림과 각종 활동에 예산이 필요하다고요. 그 부탁 절대로 그냥 들어주면 안 됩니다. 나한테 반드시 보고하세요.”

알마 뒤 문 전 대통령 말대로 김 여사가 총무비서관을 찾았다. 각종 활동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지침대로 “어렵다”고 했다. 그 후에도 수차례 비슷한 요청이 있었지만 대답은 같았다. 김 여사는 무척 서운해했다고 한다. 청와대에선 “고지식하고 딱 막힌 인물”이란 소문이 퍼졌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그를 신임했다. 그는 오랜 측근이나 캠프 출신이 아닌 기획재정부 실무 공무원이었다. 문 전 대통령이나 김 여사, 핵심 측근들과 일면식도 없었고, 그제 발탁 이유였다. 대통령 부인에게 원칙대로 ‘노(No)’라고 말하라는 것이었다. 도처에서 압박과 비판이 들어왔지만 그는 상당 기간 지침을 지키려 했다.

에너지 넘치고 활동적인 김 여사는 일찌감치 책을 내고 북 콘서트를 열 정도로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 문 전 대통령으로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김 여사와 의견 차이가 있어 부부 싸움을 하는 등 갈등이 드러난 적도 있었다고 한다. 2017년 대선 때는 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김 여사 일정을 관리하고 통제했다. 수시로 ‘노’라 했다. 후보 가족 문제로 생기는 잡음은 막을 수 있었지만 두 사람 간 갈등이 생겼다. 대선 승리 후 양정철 전장은 청와대에 들어가지 못했다.

김정숙 예산 요청 거절한 靑 참모
여사 일정 관리·통제한 文 측근
尹 정부는 ‘여사 제동 장치’ 전무
‘No맨’ 사라지면 각종 의혹 터져

문 전 대통령은 자기 가족을 감찰할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존재가 싫었을 것이다. 이미 양정철 전장은 밀려났고 총무비서관 역할도 느슨해졌다. 대통령 부인에게 제동을 걸던 ‘노맨(No Man)’이 한발 물러나자 각종 의혹이 터지기 시작했다. 김 여사의 의상비 논란이 확산되고 인도 방문은 버킷 리스트 의혹으로 비화했다. 경호처는 김 여사 수영 강습으로 구설에 올랐다. 청와대 직원들은 대통령 딸과 수상한 금전 거래를 했다. 대통령 사위의 취업 청탁 의혹은 검찰 수사로 번졌다.

다. 제동 장치가 풀린 결과였다.

윤석열 정부엔 문 정부 초기의 ‘노맨’과 같은 인적 통제 장치가 아예 없었다. 김건희 여사 문제는 사실상 성역이나 금기어로 취급됐다.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 대통령실은 “근거 없는 정치 공작”이라고 했다. 명품 가방 논란에도 윤 대통령은 “매정하게 끊어 내지 못한 게 잘못”이라며 “부부 싸움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여사와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자랑하고, 줄 대려고 접근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지만 제어 장치는 작동하지 않았다. 한동훈 전 비대위위원장에 보면 김 여사의 개인 문자가 공개돼 정치적 논란을 빚는데도 수수방관했다.

‘김 여사 사과’와 ‘국민 눈높이’를 얘기하면 질책받거나 배신자로 낙인찍혔다. 입바른 소리 하는 참모는 회의에서 배제되거나 자리에서 밀려났다. 악역을 자칭하는 측근이나 원칙을 고수하는 고지식한 실무진은 애초에 존재하기 어려웠다. 대선 공약이었던 가족 감시 특별감찰관도 2년 넘게 공석이다.

지금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가려고 각종 특검과 청문회를 밀어붙이고 있다. 김 여사의 의혹이 그 핵심에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나 참모진은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김 여사 문제를 해결할 의지조차 없어 보인다. 지금 누군가는 ‘노’라고 외쳐야 한다. 경고등을 켜고 제동을 걸지 않으면 결국 사고가 터질 것이다.

김준의 맛과 삶 [198]

인천 마른 밴댕이 무침

더 늦으면 제철 밴댕이회 맛보기 어렵다는 말에 점심 약속을 뒤로하고 연안부두로 향했다. 낮익은 밴댕이회 무침 거리다. 20여 년 전, 기상악화로 백령도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룻밤을 연안부두에 머물며 처음 밴댕이회를 맛보았다. 그 뒤로 3, 4월이면 회유하는 여유처럼 찾았다. 이곳에서 밴댕이이라 부르는 어류는 청어목 멸치과 ‘반치’가 표준명이다. 그리고 표준명 밴댕이는 ‘디포리’라고도 하는데 청어목 청어과다. 밴댕이회는 싱싱해 만족했지만, 무침은 살짝 아쉬웠다. 상추, 깻잎, 오이 등 무침에 잘 어울리는 계절채소보다는 양배추와 당근이 많다. 무침에 상추, 양파 등은 물이 많이 생기지만 양배추는 시간이 지나도 물이 쉬 생기지 않는다. 무침에 물이 생기면 식감도 맛도 떨어진다. 그래서 주문과 함께 계절채소로 무침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목이 말라 밥보다 먼저 막걸리에 손이 갔다. 안주는 회도 무침도 아닌 반찬으로 나온 마른 밴댕이다. 한 접시에 넣었는데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웠다. “그것도 밴댕이요 디포리가 아니요”라며 밴댕이를 찾는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목포에서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연안부두와 지척인 강화도 연안도 밴댕이 산지인데, 왜 먼 곳에서 가져오는 것일까. 강화도 밴댕이를 찾는 사람이 많아 현지에서 소비되는 것도 부족하다. 그래서 목포나 신안에서 가져온다. 맛도 강화산 못지않다.

남해안에서 밴댕이를 잡을 때는 멸치를 잡는 정지망이나 낭장망을 사용한다. 서해안에서는 새우 잡는 안강망이나 닻배로 잡는다. 밴댕이는 멸치나 새우를 잡는 그물에 들어온 부수 어획물



이다. 그런데 주인공이 바뀌었다. 잡는 어민이나 맛을 보던 소비자 모두 만족한다. 이제 밴댕이는 봄철 대표 어류로 바뀐 지 오래다. 밴댕이회는 전어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찾는 끝물이지만 마른 밴댕이는 계절을 잊을 것 같다.

과자가 귀한 시절에 마른 밴댕이는 바다 마을 아이들 간식이고, 어른들에게는 술안주였다. 계산대 옆에 마른 밴댕이를 판매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마른 밴댕이는 육수를 만들 때 이 용한다. 그 맛을 기억하는 어른들이 식사를 마치고 마른 밴댕이를 사간다. 식당에서 인기 좋은 효자 품목으로 자리했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社 說

이유도 없는 ‘대통령 탄핵’ 청문회, 탄핵을 정치 장난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법사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19일과 26일 두 차례 열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등 39명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30만명을 돌파한 것을 명분으로 청문회를 밀어붙였다. 국민동의청원을 근거로 탄핵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146만명이 탄핵 청원을 했지만 탄핵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다. 상식 밖이기 때문이었다. 민주당은 이런 상식 밖 일을 예사로 하고 있다.

탄핵은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도가 심해 공직 수행이 불가능할 때 내리는 극단적 조치다. 그 대상이 대통령이라면 더욱 극도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든 사유는 청원 처리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수사·재판 중인 사안이거나 일방적 의혹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전쟁 위기 조장’ ‘강제징용 진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조’ 등도 탄핵 사유라고 했다. 이런 저급한 선동이 탄핵 사유

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민주당이 잘 알 것이다.

한국은 정치 양극화와 국민 분열이 매우 심한 나라다. 어느 대통령이 집권하든 탄핵 청원이 올라오면 어렵지 않게 100만명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때마다 탄핵을 한다고 나서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기 당시 146만명의 탄핵 청원이 있었는데 그때는 청문회를 왜 안 했느냐”고 묻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당시 국회 법사위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탄핵이란 엄중한 문제를 놓고 법사위원장이 무책임한 말장난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얼마 전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 3명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것을 비롯해 민주당이 현 정부 출범 후 발의한 탄핵안만 11건에 달한다. 탄핵 소추 전 사퇴한 방통위원장 2명까지 합치면 13건이다. 취임도 하지 않은 방통위원장 지명자에 대한 탄핵도 예고했다. 언젠가 탄핵을 장난감처럼 휘두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사과 안 한 김 여사도, 답안 한 韓 후보도 이해 안 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위원장에 명품 가방 문제 사과와 관련해 보낸 문자 5건 전문이 공개됐다. 김 여사는 1월 15일부터 25일까지 보낸 문자에서 “제가 백 배 사과드리겠습니다”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 내려주시면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다 저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이라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며 사과 의사를 여러 차례 한 전 위원장에게 나타냈다.

이를 두고 친윤계는 “김 여사의 사과 의향이 없어 문자에 답하지 않았다”는 한 후보 측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김 여사 사과 의사를 무시한 한 후보의 정무적 판단 오류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다. 반면 한 후보는 9일 TV토론에서 “김 여사가 사과의 뜻이 없다는 의사를 여러 경로로 확인했다” “사과 주체는 대통령실”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일부에서는 사과 의사가 있었다면 한 후보 반응과 상관없이 김 여사가 사과하면 됐는데 안 했다고도 했다.

김 여사와 한 후보 간 문자 내용이 6개월 뒤 국민의힘 전당대회 중에 공개된 것은 대통령실과 김 여사, 친윤의 한 후보에 대한

공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런 정치 문제와는 별개로 김 여사와 한 후보가 당시 보인 행동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당시 총선을 이끈 한 후보는 김 여사가 여러 번 사과 의사를 밝힌 이상 즉각 받아들여 대통령실과 논의하면 될 일이었다. 한 후보는 문자에 답하면 국정 농단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김 여사의 사과 의사를 수용하는 것이 국정 농단과 무슨 상관인가. 대통령실이 실제로 사과를 거부했다면 김 여사 사과 의사만이라도 공개할 수 있었다. 선거 직전에 비대위원장은 모든 가능성을 찾고 최선을 다해야 했다.

한 후보가 김 여사 문자를 무시해 김 여사가 사과를 못 했다는 얘기도 말이 되지 않는다. 정말 김 여사가 사과할 뜻이 있었다면 한 후보 반응과는 상관없이 그때나 지금이나 바로 사과하면 될 일이다.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김 여사에 대한 광범위한 비호감은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과한다는 얘기는 전혀 없다. 정부 여당 전체가 김 여사 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는데, 두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운 다름만 보이고 있다.

또 어이없는 역주행 사고, 조건부 운전면허도 검토를

60대 운전자의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로 9명이 숨진 이후에도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9일 경기 수원에서 70대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사고 차량은 반대편 1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이후에도 그대로 달리 다른 승용차 4대를 더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6일엔 80대가 몰던 승용차가 서울 용산구의 주유소를 빠져나가다 갑자기 인도로 돌진하면서 보행자 2명이 다쳤고, 지난 3일엔 70대 운전자가 몰던 택시가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외벽을 들이받아 3명이 다쳤다.

아직 이들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는 여전히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고, 수원 역주행 사고 운전자도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들 사고의 공통점이 하나같이 어이없다는 것이다. 역주행 사고는 말할 것도 없고, 6일 주유소에서 발생한 사고도 차량이 주유소 출구로 나와 차로로 진입하다 갑자기 인도로 돌진한 것이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발생한 사고도 택시기사가 손님을 내려주고 회전하

다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사고다.

한편에선 운전자가 고령이라는 점을 사고 배경으로 지목한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인지 능력과 반응 속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 전체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운전자 비율이 2020년 14.8%에서 2022년 17.6%로 늘었다. 사고 고령화에 따라 비율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증가 추세다. 하지만 요즘은 젊은이 인지 능력 못지않은 노년도 흔하다. 노년의 인지 능력에 못 미치는 청장년도 있다. 나이는 중요한 변수이지만 그것이 전부라 될 수 없다는 뜻이다. 결국 ‘고령’이 아니라 ‘고위험’ 운전자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마침 경찰도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일정 나이 이상의 고령자만이 아니라 질병·장애 등으로 인지 능력이 낮아져 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 운전자의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 등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이미 유럽 몇몇 나라와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지키는 의인(義人) 6명 국힘, 왜 이들 빛나는 투쟁을 '모르쇠·과소평가·편협' 하는가?

의인 열 명만 있어도 대한민국 망하지 않는다 비(非) 좌파 언론도 이들 힘겨운 투쟁 외면 국힘 안팎 [기회주의 중간파], 공감능력도 없어



▲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빛나고 외롭고 힘든 투쟁을 묵묵히 하고 있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다. 맨 위 왼쪽 두 사람은 현직 판검사 신분이라 사진을 생략했다. 그 옆은 서해 피살 공무원의 친형 이재진씨. 아래 왼쪽부터 조명현 공익제보자, 이명풍 KBS 해직기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뉴데일리

[극좌 반역 때]에 먹히느냐, 마느냐

소동과 고모라란 고대 퇴짜 도시가 불과 유행 발(罰)로 멸망했다. 의인(義人) 열 명만 있었어도 멸하지 않았을 것이라 했다.

한국 자유 진영에도 [의로운 투사] 열 명이 없어서 [극좌 반역 때]에 먹힐 참인가?

이들을 기억해야 한다

신의 축복인지, 우리 내전(內戰) 현장에는 많은 자유 레지스탕스(저항운동) 투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문제는 그런 의인들의 빛나는 투쟁을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사실이다.

국민의힘마저 이들의 힘겨운 투쟁을 ★모르쇠 하고 ★과소평가하고 ★편협한다. 이라고도 비(非) 좌파 여당?

역사는 이들 자유 레지스탕스 전사들의 면면을 길이 기억해야 한다. 그것이 자유인들의 의무이고 도리다.

신진우 수원지법 부장판사

그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대부송금 사건과 관련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재명** 지지자들이 **신**

진우 탄핵 집회를 열었다. “전엔 이런 판사는 가족을 벗겨 그것으로 의자를 만들고, 새 판사가 그 자리에 앉도록 했다.”

강백신 수원지법 성남지청 차장검사

대장동 백현동 수사를 맡았던 그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런 글을 올렸다. “편향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수사 검사들을 탄핵하려는 것은, 권한 남용·헌법정신 훼손이다.”

강 검사 외에도 **이재명**과 민주당을 수사했던 **엄희준**·**김영철**·**박상용** 검사도 표적에 올라갔다.

서해 피격 공무원의 친형 이재진 씨

그는 60개 자유 진영 시민단체의 <더불어민주당 해산심판 청원서 제출 및 백만 국민 해산 서명운동> 공동대표로 참여했다. 그의 동생이 북한군에게 피격 살해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자진 월북을 인정할 것을 중용]**했고, 그는 폭로했다.

김혜경 법카 유용 폭로한 조명현 공익 제보자

그는 국민의힘 비례대표를 신청했으나 제외당했다. 선거 기간 국민의힘 집회에 불려갔으나, 그들은 그를 **[잘못 배달된 음식]**처럼 취급했다. 그는 수시로 병원에 다니고 있다.

KBS 민노총 권력에 홀로 저항하다가 해직된 이명풍 기자

그는 국민의힘 공천에서 배제당했다. 복직 소송 중이다. 수년간 직장이 없을 것이다. <인문인총연합회>는 이명풍 기자 후원계좌를 열었다. 카카오페이 7942-01-22468 (대한민국인문인총연합회 김현우).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

그는 외쳤다. “방송은 지금 공(公)이 아니라 용(用)이다. 현 정부가 방송을 장악? MBC의 ★윤 대통령 미국방문 [날리면] 보도 ★청담동 술자리 보도 ★김만배-신학림 가짜 뉴스는 어느 정부에서 나왔나?”

의인들 외롭게 하지 말자

국민의힘 안팎의 [기회주의 중간파]에겐 아무런 공감도 힘도 기대할 수 없다. 자유인들이 결기하자 의인들이 앞장선 자유 레지스탕스에 온몸으로 응답하자!

! 규 근 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4년 7월 8일 게재 되었습니다.